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5호(주제 제25898호) 주제 107(2018)년 1월 15일(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당세포들은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전위대오가 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의 장엄한 전진군기에 산악같이 뿔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심은 드높고 기세는 충천하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혁명적구호가 온 나라에 힘있게 울려 퍼지고 있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우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공세의 불길은 세차게 일고 있다. 당세포들이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세포만 강하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이 흔들리지 않으며 이 세상에 무서울것이 없고 뜻대로 일 이 없소이다.》

당세포는 당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전투단위, 제1선함이다. 당세포들의 활동이 우리 당의 전투적기능과 혁명의 전진발판을 이룬다.

오늘의 총공세는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높은 존엄과 영도적권위를 보위하는 결사전이며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앞당겨주기 위한 대격전이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진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오전투의 수행이므로, 사회주의승리를 향 한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도 더불어 당세포들의 사업기능과 실천력에 달려있다.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5차 세로위원회에서는 당세포들

이 차지하는 위치와 당세포위원장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재인식, 재확인하고 헌신기 당세포를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명백히 제시하였다. 당의 기층조직이며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들의 전투적 위력을 백방으로 높여 전진로상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짓부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진선에서 전면적 부흥을 안아오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당세포들의 전투적위력을 비상히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을 반식같이 다져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업이다.

공고한 대중적지반은 우리 당과 혁명의 필승불패의 원천이다.

그런 천지지면속에서도 끄떡없이는 우리 당의 대중적지반은 인민들을 당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는 당세포들의 역할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대중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머니당의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피며 손잡아 이끌어주는 당세포들이 있기에 전체 인민이 뜻과 열연적능력을 이루고 사상과 뜻,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고있는것이다. 조선로동당의 혈통도 없는 지지자, 조전자, 방조자도 되고있는 우리 인민의 총지하고 근면하며 강의한 모습에는 평범한 대중속에 살아숨쉬는 당세포들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어 있다.

결정하는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당을 마음의 기둥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신념은 투철하다. 지금 우리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을 제일 무서워하고있으며 어떻게 하나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심을 허물어버리고 악랄하게 꺾고있다. 전당의 당세포들이 군중과 호흡을 같이하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과의 사업에 전심전력할 때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조선로동당의 불패성은 더 높이 떨쳐지고 주체혁명에 위대한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승승장구하게 될것이다.

당세포들의 전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비약적전진을 촉진시켜나가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대내외, 대혁명의 불길은 당의 사상과 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천만군민의 애국정성의 거센바 불꽃이다. 지난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와 인민의 생존자세를 위협하는 극악한 제국주의압박에서 우리 사회주의강국 건설이 순간의 담보도 모르고 줄기차게 추진되게 된것은 당세포들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직하고 격려하고 이끌기하고 조직하고, 조국건설의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냈기때문이다.

오늘의 혁명적인 총공세는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향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기풍의 최대의 발현이다.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 혁신의 전통을 이어나가자고 해도, 인민들의 양심적 혁명적기세를 더욱 고조시키고자 하고 인민사과대결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높여야 한다.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부문,

모든 초소에서 활동하고있는 수십만 당세포들이 산악같이 일떠서고 전위적 역할을 다해나간다면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끊임없는 전진과 변혁이 이룩되고 우리 조국의 종합적국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하는 최고령도자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었다. 여기에는 당의 사상관철, 당정책수행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다.

모든 당세포들은 《당세포 총성의 세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감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세는 사상의 위력으로부터 단원들을 해쳐나가는 절대 사상전이다.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도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고 승리의 비결도 사상사업강화에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혁명가로 키우는 거점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기층사업과 함께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위대한 투쟁전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임무이다. 대중에 대한 사상사업강화를 위한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야 한다.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혁명가로 키우는 거점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기층사업과 함께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위대한 투쟁전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임무이다. 대중에 대한 사상사업강화를 위한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야 한다.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매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숭고한 인생관을 더욱 깊이 체득시키는데 모를 막고 사상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진세대들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따라 배워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신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국주의에 대한 자그마한 환상도 가지지 말고 조성된 판권, 당정책수행의 전초선을 지켜선 우리 당의 기본전투단위인 당세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어려있다.

모든 당세포들은 《당세포 총성의 세로, 당정책관철의 전위대오로 강화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혁명적인 총공세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감으로써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음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한다. 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오늘의 총공세는 사상의 위력으로부터 단원들을 해쳐나가는 절대 사상전이다. 기적창조의 근본원리도 대중의 정신력발동에 있고 승리의 비결도 사상사업강화에 있다.

당세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여 혁명가로 키우는 거점이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과 함께 기층사업과 함께 사상사업을 심화시켜 위대한 투쟁전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임무이다. 대중에 대한 사상사업강화를 위한 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내야 한다.

을 총동원하여 제때에 최상의 수준에서 집행해나가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집단적혁신과 대중적영웅주의로 새 기준, 새 기록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갈수록 고무추동하여야 한다. 따라잡자, 따라잡자, 경협적협동력을 활발히 발휘 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자기 단위가 전진단위대렬에 당당히 들어 서게 하여야 한다.

경제부문의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중산투쟁, 창조투쟁, 돌파투쟁으로 힘있게 불어일고 경제전진선에서 활동하는 돌파구들을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금속공업부문의 당세포들은 당중앙을 옹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선도하며 농업부문의 당세포들은 올해 자기 단위에서 제시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로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헌신기 내내 중대하고도 질박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의 기본전투단위를 맡겨준 당의 믿음에 당세포의 전투력강화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당세포로써 나선 첫걸음은 임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천이다. 당세포들은 당정책과 혁명의 임무를 깊이 연구하고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찾으며 중심고리에 적당

군들과 당원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늘 일감을 두류, 세류씩 받아안고 뛰고 또 뛰어야 한다. 사람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따라잡자, 따라잡자, 경협적협동력을 활발히 발휘 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게 함으로써 자기 단위가 전진단위대렬에 당당히 들어 서게 하여야 한다.

경제부문의 당세포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중산투쟁, 창조투쟁, 돌파투쟁으로 힘있게 불어일고 경제전진선에서 활동하는 돌파구들을 열어제끼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금속공업부문의 당세포들은 당중앙을 옹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선도하며 농업부문의 당세포들은 올해 자기 단위에서 제시된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5차 세로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헌신기 내내 중대하고도 질박한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당의 기층조직인 당세포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세포위원장들이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당세포위원장들은 당의 기본전투단위를 맡겨준 당의 믿음에 당세포의 전투력강화로 보답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당세포로써 나선 첫걸음은 임무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실천이다. 당세포들은 당정책과 혁명의 임무를 깊이 연구하고 그 수행방도를 정확히 찾으며 중심고리에 적당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광숙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배우 김광숙동지의 서거에 깊은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었다. 평양 학생소년궁전 성악지도교원인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14일 교인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지난해 12월 22일 부터 3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제5차 세로위원회에서 진행된 소식을 인디언의 신문들인 《스테이크》, 《오우선 뉴스 포인트》, 인디아-아시아통신, 인터넷통신 보이오 오비 밀리언즈,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덜란드 협회 인터넷홈페이지 《주체-네발》, 중국의 신화통신, 중앙TV방송, 중국

보도당, 환구망,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도쿄신보》, 《니혼게이자이》, NHK방송, 로씨야의 파스통신, 리아 노보스뜨통신, 인베트뉴스통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제트》, 《웨도모스프》, 인터넷신문 펜파, 루, 인터넷통신들인 페그늘, 가제트, 루, 인터넷잡지 《팩트워》, 인터넷홈페이지들인 《야드리아 모스크바》,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이칠란드언언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 예진신문 《알 야움 알 싸비야》,

베네수엘라의 텔레부르TV방송과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민주공화국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백두산세조조선전선전선, 신문들인 《로씨스카야 가제트》,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 나이제리아에 부분론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현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들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전하였다.

도이칠란드언언 인터넷홈페이지 《현지지도소식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 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새해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면서 새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있어서 보다 큰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복리와 행복한 삶이 가득한 해로 될것을 축원합니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수리아 아랍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2018년 1월 13일 디마스끄

첫달 산지통나무생산계획 빛나게 완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물나무생산은 늘이는데서 제일중요한것이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해나갈때 대한 당의 부름에 퍼붓는 심장오로 화답해나선 121호립업련합기업소, 강계목재생산사업소 로동계급은 통나무생산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첫전선에서부터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121호립업련합기업소에서 종합된 자료가 의하면 령합기업소에서는 새해 첫달 산지통나무생산계획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121호립업련합기업소 당조직에서는 년초부터 산지의 전투현상에서 선전사과관철에 중점을 불어넣기 위한 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려 총공세의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련합기업소로동부 일군들은 모든 사업소들에서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해결한 많은 부속품들과 공구들을 립산사업소에 공급하는 등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진행하였다.

상장림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자들은 새해부터 산관을 타고 있어 드세한 돌격전을 벌이면서 령합기업소의 불길을 지켜냈다. 사업소에서는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부속품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산관에 달려가 이동수리를 적극 행하였다.

목재림산사업소의 자동차운전사들도 산에 합하고 생산조건이 어렵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적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통나무생산에서 령합의 고무예수였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둘을 맞이하는 올해를 전에는 로동적성파로 빛날 열의를 안고 산관마다에서 통나무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갔다.

위훈장조의 불길은 삼수, 성

강계목재생산사업소에서 함을 넣으면서 산관에 올라 이산작적의 일본제 조업소들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 산지통나무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 열의를 안고 펼쳐나선 이 첫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부각되는 예로와 난관을 자강적력투쟁으로 파고나감으로써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송학작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립산조건에 맞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서 산지통나무생산에서 높은

매일 화물수송계획 1.2배로 넘쳐 수행

원산철도분국에서

원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 중추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려가고있다.

종합된 자료가 의하면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새해 첫 전진투쟁부터 매일 화물수송계획을 1.2배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 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분국당조직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동하는 돌파구들을 열어제끼는데 대한 당의 전투적요소를 퍼붓는 심장마다에 깊이 간직하고 있어 두줄기 궤도에 중추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수송성파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원산철도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두줄기 궤도에 중추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수송성파를 더욱 확대해나갔다.

주체적인 혁명적 출판물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여

《새날》신문 창간 9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출판물인 《새날》신문을 창간하신 때로부터 90돐이 되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동맹으로 천만군민을 힘있게 추동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은 《새날》신문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명도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출판도 사상을 창시하시고 물소 혁명적출판물의 원형을 창조하시으로써 출판물력사에서와 혁명적출판물도리본발전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으셨습시다.》

혁명은 사상적으로 준비되고 각성한 인민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전진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에서 출판물이 노는 커다란 기능과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부터 혁명적출판물 창간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중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날 새날소년동맹원들과 소년들, 군중들을 통일적으로 교양할 수 있는 신문을 내놓을 것을 밝히시고 그 창간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의 조건에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은 보통의 담과 열정을 가지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일제의 감시와 폭압은 더 말할것도 없고 등사기와 종이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그처럼 험난이 어려웠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천만의 흥분을 대신하는 위대한 투기가 될 신문을 발간하는 사업을 지체없이 실현에 옮기

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을 신문 창간사업에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창간하게 될 신문의 제호를 새날소년동맹의 머리글자를 따서 《새날》로 하도록 하시고 신문의 내용과 편집형식을 동맹의 성격과 동맹원들의 수준과 정서에 알맞게 잘 만들도록 하시였으며 《새날》신문의 사명도 밝혀주시였다.

《새날》신문의 사명은 동맹원들과 소년들 나아가서는 광범한 군중을 일제를 반대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교양하고 참다운 혁명가로 키워 조국해방정세로 힘있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밤을 지새우며 신문창간호에 실을 창간사를 손수 쓰시였으며 동맹원정자들이 써낸 글들을 하나하나 검토하시고 친히 가필까지 하여주시였다.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때 무슨 정적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회고의 교시는 첫 혁명적출판물발간에 갖는 우리 수령님의 크나큰 심혈을 가슴뜨겁게 새겨안게 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드디어 주제 17(1928)년 1월 15일 《새날》신문의 창간호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신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쓰신 《신문 (새날) 창간호를 내면서》라는 창간사가 실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창간사에서 우리 나라를 영원히 식민지로 만들며 나아가서는 중국통치까지 집어삼킬 야망만이 피비린내나는 칼날을 악착하게 휘두르고있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준렬히 폭로탄파 하시였다.

그리고 조선청소년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새날소년동맹을 결성하고 《새날》신문을 내는다는것을 명확히 밝히시였으며 새날소년동맹앞에 나서는 투쟁과업을 제시하시고 모든 동맹원들이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전무적으로 떨쳐나설것을 힘있게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새날》신문 창간사를 집필하시어 발표하시으로써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도리본발전과 혁명적사상투쟁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창간사를 정성껏 편집한 《새날》신문의 첫호를 발간한것은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창간 의의와 그 강활발전에서 거대한 의의와 가치를 띠는 역사적사건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필하신 창간사를 정성껏 게재함으로써 《새날》신문은 우리 나라의 혁명적출판물력사에서 처음으로 백두산위성의 고전적토대를 실은 출판물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인류혁명의 초기여 방금 《새날》에 물에 깊은 관심을 돌린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출판물들을 무기로 삼고 착취체도를 반대하여 투쟁하시였다.

하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10대의 나이에 출판보도물을 혁명투쟁의 위력한 무기로 활용한 위인은 력사에 있어본적 없다.

혁명활동의 초기여 방금 《새날》과 같은 신문을 창간하시어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원형을 창조하시고 출판물력사에서와 혁명적출판물도리본발전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우리 수령님은 실로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

당시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밑에 《새날》신문을 실행한 기사들중에는 《청년들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건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목숨걸고

파고히 싸우자!》, 《일제는 어떻게 조선을 강점하였는가》, 《저놈들은 농민들을 어떤 방법으로 착취하는가》, 《공산주의사회란 어떤 사회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들도 있었다.

기사들의 제목만 놓고보아도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새날》신문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강도적 침략과 야수적인 식민지학살정착을 적나라하게 발가벗고 신랄히 규탄하였으며 조선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이 단결된 힘으로 일제와 싸워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투쟁의 권리를 청소년들과 인민들에게 깊이 새겨주었다.

착취사회의 근본모순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본질을 원리적으로 폭로하는 글들과 인류사화발전사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글들, 문화계몽자료를 특색있게 편집된 신문은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들의 눈을 번쩍 띄워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밑에 편집발간된 《새날》신문은 정치사상성이 높으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회와 전인력을 발휘하면서 청소년들과 대중속에 널리 읽히게 되었고 그들의 열렬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신문은 무중상태를 비롯하여 말리려, 송수진, 삼도화현 등 넓은 지역에 배포되어 청소년들과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새날》신문에는 만경대혁명일가들의 고결한 념과 노력도 깊이 이겨졌다.

우리 인민은 오늘날 사나운 눈보라를 헤치며 위업을 무릅쓰시고 《새날》신문을 나르시던 창간지사들의 모습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다.

창간지사들께서는 살바늘질과

샅샅히 이어졌다.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태어난 《새날》신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세월과 더불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선 혁명과 건설을 련결히 고수하고 대를 이어 완성하도록 《새날》신문을 다시 내도록 하시였다.

《새날》신문은 청소년들과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광범한 군중들의 애독을 위하여 널리 보급되어 애독되는 과정에 점차 배포부수도 많아지고 보급범위도 넓어지게 되었다.

신문이 가닿는 곳마다에서 망국노의 실음으로 눈물짓던 사람들이 조국해방에 대한 희망을 가지었고 공청조직들과 각종 대중단체들이 활발히 움직였다. 빛있어 보던 자들의 지난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시들려 조기를 찾는 사람들도 많았고 끝까지 팔자만 알던 녀성들이 부녀회에 모이게 되었다.

《새날》신문이 얼마나 커다란 전인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은 그것이 새날소년동맹은 물론 반제 청년학생들, 공장, 부녀회조직들에서 창간호제로 되고 대중선전수단으로 리용된 사실만 가지고도 잘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새날》신문은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었으며 그들을 조국해방의 맑은 새날을 향해 신심있게 싸워나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새날》신문이 발간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력사적부리가 내리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전통은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불세비코》와 《농우》를 거쳐 《3.1월간》, 《서광》, 《종소리》, 《철혈》 등으로

경사스러운 사변이었다.

《새날》신문의 복간에는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기능과 역할을 끊임 없이 높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기록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고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림있는 신념과 의지가 어어어었다.

우리의 청소년학생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미려한 계승자로 키워나가는 데 적극 이바지해온 《새날》신문의 자랑스러운 력사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위촉하시어 사경에 처한 기사를 위해 사랑의 비형기를 켜우도록 하고 강력한 의료진을 무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수놓아져있다.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이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승을 순결하게 계승해나가는 데 정력적으로 이룩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신문발행정형도 알아보시면서 신문의 첫 혁명적출판물의 영예와 전통적위업을 더 높이 펼쳐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게하신다.

《새날》신문의 창간과 더불어 우리의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이 걸은 장구한 로정은 수령님의 사상과 명도를 실현하는 사상투쟁으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괄발사하는 혁명의 보급으로 위력명철은 자랑스러운 행로로 빛을 뿌리고 있다.

사상 이론의 천재이시고 언론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신 주체적인 혁명적출판물의 고귀한 전통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김 준 력

|| 잊지 못할 강계의 눈보라길을 더듬어 ||

영원한 혼연 일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공적중의 공적입니다.》

20년전 1월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도안의 공장들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 공은 언제 어느 한 련합기업소도 있다.

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공장이 잘 꾸려진것이 휴양소같기도 하고 궁전같기도 하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생생하게 앙양을 일으키고나가고 있는 미려한 로동계급을 만나시켜 생생한정도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생생한정도로 돌아다니시자 로동자들이 《장군님!》 하고 목메어 부르는 소리가 여거저거 치기 퍼져나갔다.

참기 어려운 시련이 겹쳐들어 오고 흔들리지 않던 로동계급의 억센 어깨가 그이앞에서 새차게 물들었다.

그들의 불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자나깨나 그러던 위대한 장군님을 뭉가까지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 장군님만을 믿고 꽃피어 살며 투쟁하는 지난날에 대한 긍지의 불출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뜨거운 시선으로 로동자들을 바라보시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수고가 많다고 그들의

손을 힘있게 잡아흔드시였다.

그이께서는 로동자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가식없고 직통배기인 로동자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호랑처럼 웃으시기도 하시였다.

그것은 정병 아버지와 자식간에 볼수 있는 끝없는 다정하고 허물없는 모습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 로동자들은 새로 창안제작한 능률 높은 기계설비들을 보여드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것을 대 보시고 우리 로동계급이 정말 자랑합니다. 로동계급의 억센 무쇠마치로 빈리에서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던 그 정신, 그 기백이 온 공장에 차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이 이곳에 살아있습니다. 우리 로동계급은 당의 요구라면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무조건 해내는 총실성의 전통을 창조한 영웅적로동계급입니다. 그리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강행군의 전투장에서 불꽃을 날리며 기대를 돌리는 로동자들과 갖가지 가공품들이 끊임없이 쌓여지는 일터를 만추에 넘쳐 놀라 보시였다.

우리 식 사회주의를 무쇠마치로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영웅적로동계급의 거대한 승결이 일떠어 차넘치고 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우리 로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힘이 부쩍 솟는다고 하시며 최후승리를 위한 강행군도

승리적으로 결속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이 나라의 맡아 들기실을 제대로 못하여 장군님께서 이 추운 때에 먼길을 걸으시게 하였다는 송구스러움과 자책감으로 몸들 바를 몰라하였다.

《장군님, 우리 로동계급은 더 어렵고 준엄한 시련이 앞을 막는다고 해도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맞받아싸고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켰습니다. 장군님께서선 계시면 우리는 무서운것도, 못해낼 일도 없습시다. 우리가 버려진것은 장군님의 안보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사나운 눈보라길을 걸으십니까, 장군님께서 계시어 조국도 있고 우리 로동계급도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하고싶으신 한마디 말씀, 수고있으신 한마디 정을 담으시어 로동계급의 장엄박진 손목을 꼭 잡아주시며 고맙소, 고맙소 라고 하시였다.

전후 어렵던 시기 제머미만 남은 강산을 찾으신 우리 나눈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이 준엄한 눈보라를 헤쳐 나가고 하시던 아버지수령님과 외강태를 추켜들며 심장의 맹세로 호응하던 로동계급의 그날의 모습이 조국방변에 다시 펼쳐지는듯 하였다. 전하의 고신 락 원형에서 울린 수령님, 부군건설은 넘어 허지 마시시오, 수령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폐허를 가지고 잘살게 됩니다라는 목소리도 다시

울리는듯싶었다.

세월은 흐르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아버지수령님 그대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어 1990년대의 로동계급 또한 1950년대 로동계급과도 같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로동계급과 작업의 인사를 뜨겁게 나누시였다.

그이께서는 믿음과 기대에 찬 어조로 나는 오늘 여기 로동계급에게서 큰 힘을 얻고 갑니다. 나는 로동계급의 혁명정신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조국땅을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시자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를 바래워드리며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만세!》의 환호성을 끝없이 터쳤다.

그들은 백배의 힘과 용기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믿음, 기대를 안으시고 가장 어려운 때에 그들을 찾으신 바로 여기에 자강도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살아있는 무상의 행복과 영광이 있는것이였다.

자강대에 펼쳐진 그날의 송고한 화폭.

그것은 어려운 매일수백 명도자 인민을 믿고 인민은 명도자를 믿고 따르며 신심과 락판에 넘쳐 살며 싸워나가는 이 땅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영원한 혼연일체 모습이었다.

본사기자 함 영 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리수복영웅의 가정을 찾으며 배풀어주신 크나큰 사랑 길이 전해가리. -금천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명천군 마산리당위원회에서는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당원들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수령결사옹위일심정제 진행해나가고있다.

리당 위원회에서는 특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당원들과 농장원들속에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당조직과 군로단체조직들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도서들을 가지고 독보, 해설담화, 연구발표모임 등을 주별, 월별계획에 따라 아침독보시간과 작업의 습합에 적극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세로위원들과 선동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현수님의 명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뿐 아니라 마음을 안고 당원들의 영웅적사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리당위원회일꾼들도 농사차비로 돌고돌고있는 작업반들이 나가 항일의

나날에 새 조국건설의 나날에 나 변함없이 천위천사의 자세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신 백두산대장군의 빛나는 혁명생애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였다.

지금 이당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경애하는 현수님의 명도를 더 잘 받들어나갈 뿐 아니라 마음을 안고 당원들의 영웅적사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리당위원회원 김 성 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시며

평가의 기준

인 제 인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한 기업소를 찾으신고 제품평가의 기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아주시던 경애하는 현수님께서선 지난 시기에는 이런 제품을 만들자면 많은 로력과 자재,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적은 로력을 가지고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다량생산하는데 대단한 기술혁신이라고 치하시였다. 그러시다가 문득 질서 사용자들의 반성이 어떤가 고 물으시였다.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일꾼들의 대답을 혁명하는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훌륭한 개진확장된 평양자라공장을 찾으신데 어드나있었다.

웃은비내리는 속에에도 경애하는 현수님께서선 공장직공들을 한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에 회한하게 현지개별되었다고, 인민들의 식생활상에서 이바지

들으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선 자신께서 보기에 좋은것보다도 그것이 좋은 사람들이 좋다면 그것은 좋은것이라고 다시금 평가하시였다.

울 사람들이 좋다면 좋은것이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 말씀하신 울 사람들이란 다음아닌 인민들이였다.

그것을 리용할 인민들의 요구가 제품의 평가기준으로 되어야 한다는것, 인민들이 좋아하면 좋은 제품으로 되지만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떤 질서 사용에도 좋은 제품도 될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현수님의 뜻이었다.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되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맞추고 영양가 높은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 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이 깃들여있는 자라공장을 인민들이 덕을 보는 공장, 우리 나라 양식공정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반시키기 위해 바쳐오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심혈과 로고는 그 열매였다.

경애하는 현수님께서선 현대적으로 개진된 평양자라공장을 돌아보니 얼마나 기쁘게 보셨다고,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를 먹이시려고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보람있는 일을 또 하나 해냈다고 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의 당풍

함복도의 북부지구에 큰물피해가 발생하는 예상치 않았던 난국이 조성되었을 때였다.

조선로동당의 당풍을 리해하신 경애하는 현수님께서선 지금 수많은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며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살림집을 지어주어야 한다고 고, 우리는 이번 북부지구투쟁을 통하여 인민을 위해 열사부투하는 것이 조선로동당의 당풍이라는것을 새 세상에 다시 한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연막군을 끌어냈고 나라의 재부를 통째로 기울여서라도 당장 들이닥칠 강추위에 피

그리시면서 공장을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보니 마음이 가깝고 즐거워진다, 이런 멋에 힘겨워도 혁명을 하고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혁명하는 것을 느끼는분, 거기서 가장 큰 희열을 받아 안으시는분.

그이는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였다.

이 땅의 이롭없는 외진마을에도, 크지 않은 하나의 물가에 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있는 사랑의 일화들이 깃들었다.

예의 이야기는 최종 하나이다. 《장군님의 애국의 마음에는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꼭 차있었습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황해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가시다가 어느 한 군의 양수장부근에 들리시였다.

양수장이 자리잡고있는 곳에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었는데 그것을 황추천이라고 불렀다.

그때 양수장에서는 군당의 한 일꾼과 양수공이 이천보다 능력이 큰 새 양수기를 조립하느라 고 땀을 흘리고있었다.

공결에도 그러던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게 된 그들은 감격에 겨워 어쩔줄을 몰라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양수장을 돌아보시면서 양수기의 능력도 알아보시고 큰 저수지도 있는데 양수기를 하여 농사를 잘 지어보라고 군당일꾼과 양수공을 고무해주기도 하시였다.

그이께서 강기슭에 새로 쌓은 제방이며 보루라 나무들이

잊지 못할 황추천가

키들움하며 자라고 잔디밭이 펼쳐진 제방주변까지 다 돌아보고 나섰을 때는 점심시간이 퍼 지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뭉가까지 모시고있던 군의 책임일꾼은 장군님께 오느만은 우리 군인민들의 성의를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청을 드리고나서 마을에 내려가시라고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도내기로 바쁜 인민들에게 폐를 끼쳐서야 되겠는가고 하시면서 점심식사시간이 지났으면 여기서 그냥 식사를 하고 하시였다.

일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도사 마을에 내려가실것을 간절히 말씀올리였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일없다고, 이런데서 식사하는 맛도 있다고 하시면서 일꾼의 청을 받아들여주셨으면 한다고 하시였다.

그리시고는 아침에 평양에서 떠나온 때 준비해가지고 떠났던이 일꾼이 귀를 기울여보니 정말 양수기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 양수장에서 새 양수기를 팔고나오는 눈에 물을 대는것 같다고 말씀 올렸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있었을 때를 잊지 않았다고 하시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양수장에서 새 양수기를 팔고나오는 눈에 물을 대는것 같다고 말씀 올렸다.

그리시고는 그 동무들이 작업 중에 있는 양수기를 운전하고 고 여기에 올수 있다면 거기 서라도 식사를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몸소 양수장에 있는 군당일꾼과 양수공의 점심식사를 마련해주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 보셨다고 하면 그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할수도 있었는데 그런 불행이 없게 되고 싶다고 하시였다.

인정깊으시고 한없이 다심하신 그이를 우러러며 일꾼은 눈물을 적시였다.

잠시후 일꾼은 양수장에 도착 하였다. 앞아 보니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견학목적처럼 군당 일꾼과 양수공은 점심식사를 하 지 못하세 물을 퍼올리고있었다. 일꾼은 빨리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퍼올렸다. 군당 일꾼과 양수공은 고마와하면서 음식에 마주앉았다.

일꾼은 빨리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퍼올렸다. 군당 일꾼과 양수공은 고마와하면서 음식에 마주앉았다.

일꾼은 빨리 식사를 하라고 하면서 음식을 퍼올렸다. 군당 일꾼과 양수공은 고마와하면서 음식에 마주앉았다.

한가운데서 양수공과 군당일꾼은 왜 그 말을 이해야 하는가고 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머금었다.

물가의 보루라 나무들도 목에안듯 봄바람에 팔없이 실베 이었다.

본사기자 김 일 련

우리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여 다용도화된 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이 개건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는 농기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집중적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본보기작업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농기계공장에서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능률높은 농기계들과 부속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사회주의협동농법마다 우리가 만든 농기계들의 동물이 울리게 하여야 합니다.》

황해북도에서 사리원 트랙터부속품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농촌경리의 종합적계획을 실현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론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복청과수기계공장 일군들과 노동계급...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factory and workers)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 전진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가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사회주의문화 전진적으로 개화발전하는 나라, 인민이 높은 창조력과 문화수준을 지니고 최상의 문명을 창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우리가 남시축산기계공장에... (Text continues with details about the machinery factory)

